

---

##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전문가 양성 방안\*

송영숙

송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조교수

조은식

송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교수

---

## The Development of Trade Experts according to the Changing Trade Environment

Youngsook Song<sup>a</sup>, Eun Sik Cho<sup>b</sup>

<sup>a</sup>Division of Baird, Soongsil University, South Korea

<sup>b</sup>Division of Baird, Soongsi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15 September 2019, Revised 14 October 2019, Accepted 15 October 2019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methods to effectively train experts in trad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levant literature was analyzed. Three experts from each of academia,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sector were interviewed. The study results found that the problems of cultivating trade experts wer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ismatches, the disparity with the field, and the lack of government support for training trade experts, etc. Methods for fostering trade experts were suggested to resolve these mismatches, to secure a budget for training trade experts, to establish a body or council for coordination, to develop a trade expert roadmap, to introduce a program for certificated trade expert,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for trade experts.

---

**Keywords:** Trade Experts, Trade Environment, In-depth Interview

**JEL Classifications:** F10, F14

---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Korea Sanhak Foundation in 2018.

<sup>a</sup> First Author, E-mail: yssong@ssu.ac.kr

<sup>b</sup> Co-Author, E-mail: echo@ssu.ac.kr

© 2019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 I. 서론

오늘날의 무역환경은 WTO(세계무역기구)와 FTA(자유무역협정)로 대표되는 신지역주의의 심화,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나타나는 선진국 중심의 신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간의 무역 분쟁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무역의 방식, 품목, 운송, 물류체계 등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 1946년 수출 354만 달러, 수입 6,072만 달러에서 2011년 사상 처음으로 무역 1조 달러를 넘어선 이후 4년 연속 1조 달러 달성에 성공했다. 2018년 1조 1405억 달러(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9)에 달하는 한국의 교역규모에 걸맞고 무역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양질의 무역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무역전문가의 효과적 양성과 공급은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국가발전의 핵심요소인 무역전문가 양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기업과 민간 부문, 학계 등(Kim Hag-Min, 2018; Park Kwang-So, Lee Byung-Mun and Park Se-Hoon, 2018)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무역전문가의 양성은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특히 급변하는 무역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무역전문가의 역량을 개발하고,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개선도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무역전문가 양성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역전문가 양성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는 대부분 양적 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무역전문가 양성 실태, 무역인력 공급기관과 소비자의 소통 부재,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부 정책 개선 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술 통계 분석, 다중 회귀 분석 등 양적 연구 방법에 기초한 기존 선행연구는 무역인력 양성 관련 일반

적인 현상 분석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양적 연구 방법에 기초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간과할 수 있는 무역인력 양성 관련 현상, 상황, 경험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무역전문가 양성 방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전문가 인력 양성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무역환경의 변화를 살피고,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무역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점검하며, 무역인력 양성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무역환경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무역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 셋째, 무역전문가 양성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넷째, 무역전문가 양성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결과는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 과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 II. 이론적 배경

### 1. 무역환경 및 트렌드의 변화

무역인력 양성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무역환경과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WTO 도하개발 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신지역주의 추세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세에 의한 무역 장벽은 낮추어지고 있으나, 수입규제조치, TBTs(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은 강화되는 추세이다(Han

Eun-Sig, 2010).

세계경제에서 신흥개도국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치중하던 무역 의존도가 감소하는 반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BRICs 등 신흥경제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신흥개도국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구조나 무역정책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역상품도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서비스 무역, 기술무역 등이 확산되고 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른 퓨전제품의 등장 등으로 시장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국가간 무역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교역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 기술, 소프트웨어, 플랜트 상업 등 비상품 무역의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무역업무 패턴도 변화되고 있다(Han Eun-Sig, 2010). 일반인의 해외경험 및 외국어 능력은 향상되고 무역업무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단순 수출입 업무 처리능력을 가진 무역인력의 차별성이 감소되고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확대로 오프라인 업무 형태로 진행되던 무역마케팅, 수출입 거래조건의 협상 등 무역업무 많은 부분이 전자무역 형태로 바뀌는 등 무역업무 전반에 걸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보화 역량이 중요해지고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거래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거래 확산으로 서류 없는 무역거래를 통하여 무역업체, 금융기관, 유관기관 모두에게 많은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으며, 전자무역거래형태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Yoon Chung-Weon and Liu Zuan-Kuo, 2008).

## 2. 무역전문가의 개념

무역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연구가 몇몇 수행되었다. 과거에는 무역인력을 기능적이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의하는 연구들이 대부분

이었으나 최근에는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무역 형태, 품목, 물류 체계 등의 변화에 따라 기능적이며 실무적인 차원을 넘어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무역인력을 정의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는 무역환경과 무역인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무역인력이 수행하는 직무와 역할이 달라지고 있으며, 무역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기능적이며 실무적인 단순 무역인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인 반면, 새로운 무역인력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Oh Won-Seok, Yang Jung-Ho and Park Se-Hoon (2009)은 무역인력의 개념이 협의의 개념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역량이 무역인력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Oh Won-Seok, Yang Jung-Ho and Park Se-Hoon (2009)은 선진형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이들에 따르면, 선진형 무역 전문인력은 무역실무 능력과 함께 지역, 상품, 기술, 외국어 능력 등에서 고급화된 지식과 전문화된 역량을 갖추고 첨단 지식 및 기술무역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무역전문인력, 서비스·기술무역 전문인력 및 해외지역 전문인력을 의미한다. Oh Won-Seok, Yang Jung-Ho and Park Se-Hoon (2009)에 따르면, 선진형 무역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은 무역실무능력, 통상협상 및 전략에 필요한 전문화된 능력, 특정지역의 경제, 문화, 법·제도 등에 대한 전문화된 능력, 상품지식, 기술개발, 상품 융복합, 특허분쟁능력 등을 갖춘 기술 전문성, 국제금융기법 및 외환관리 업무 능력, 국가간 생산공정의 분화를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소싱 능력,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Han Eun-Sig (2010)도 선진형 무역인력에 대해 정의하였다. 무역인력의 범위를 기능, 산업, 지역별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선진형 무역인력은 기능, 산업,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무역인력이라 하였다. Han Eun-Sig (2010)에 따르면, 선진형 무역인력은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는 동시에 지역화되고 있으며, 지식, 기술 등이 급변함에 따라 실무지식과 더불어 외국어, 상품 및 기술지식, 법률 지식과 통

상, 지역 및 시장에 정통한 전문지식을 갖추며, 무역업무의 정보화·융합화 및 복합무역의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급 무역인력을 일컫는다.

Kim Hag-Min (2018)은 'FTA시대의 선도형 무역인력'을 제안하였다. Kim Hag-Min (2018)에 따르면, FTA 확산의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의 둔화를 경험하고, 신흥공업국의 추격을 접하며, 주요 수출시장의 변화를 피해야 하는 시기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할 인력양성이 큰 주제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무역인력 양성이 핵심인데, Kim Hag-Min (2018)은 FTA 시대의 선도형 무역인력은 전체적인 관점과 전략적 세밀함을 갖추고, 특정 산업, 기술, 시장, 네트워크, 의사소통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해외시장 개척 및 사업을 경험한 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Kim Hag-Min (2018)의 선도형 무역인력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에 관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며 국제 무역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이라 할 수 있겠다.

Park Kwang-So, Lee Byung-Mun and Park Se-Hoon (2018)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무역인력 양성은 양적인 수급에서 질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여 하며 이에 따라 스마트복합무역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Park Kwang-So, Lee Byung-Mun and Park Se-Hoon (2018)에 따르면 무역인력의 개념이 변화되어 왔는데, 상품수출의 프로세스 상 수반되는 제반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중심의 무역인력의 개념에서, 무역실무 지식을 갖추고 무역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무역전문 인력으로 변화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생산의 분업화와 생산자-소비자간 거리 및 감정의 간격의 축소에 기인한 무역거래의 종적 프로세스 확대와 산업간 횡적 융합에 부응하는 스마트복합무역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역화, 정보화 등으로 인하여 과거 무역프로세스 중심의 실무지식에서 외국어, 상품 및 기술지식, 통상 및 해외지역시장에 정통한 전문지식을 갖춘 고급 무역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무역인력 관

련 대부분의 연구에서 무역인력의 개념이 변화되어 옴을 제시하였다. 무역 프로세스에 대한 실무지식 중심의 기능형 무역인력은 과거의 개념으로 오늘날의 무역환경과는 맞지 않으므로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 빅데이터, 정보통신 기술 등 4차 산업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산업, 기술, 문화, 감성 등 융복합적 무역환경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개념으로 무역인력 개념의 범위 혹은 요구가 양적과 질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무역전문가란 글로벌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무역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경험을 갖추고, 급변하는 무역환경을 선도하며, 복잡화·다양화·융복합화 되는 무역 전반을 주도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고도의 숙련된 전문가를 의미한다.

### 3. 선행연구의 분석

무역전문가 양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국내 외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무역환경의 변화, 무역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 무역전문가 양성 문제점, 무역전문가 양성 개선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로 Cho Won-Gil (201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Cho Won-Gil (2016)는 GTEP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습 프로그램 구성요인에 대한 교육훈련 참여자의 평가와 무역전문인력 역량 수준과의 관계, 교육훈련 참여자의 정부지원 확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무역전문인력 역량제고와의 관계, 교육훈련 참여자의 표준교과과정 훈련 참여와 무역전문인력 역량제고와의 관계, 교육훈련 참여자의 외국어 프로그램 참여와 무역전문인력 역량제고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Cho Won-Gil (2016)의 연구결과, 학습프로그램 구성요인과 무역실무, 학습프로그램 구성요인과 외국어 능력, 표준교과과정 활용과 무역실무, 외국어 프로그램 참여와 외국어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무역전문가 양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룬 정책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Park

Kwang-So, Lee Byung-Mun and Park Se-Hoon (2018)는 무역인력양성의 패러다임이 1970-1980년대 일반무역인력, 1990-2000년대 전문무역인력에서 이제는 스마트복합무역인력 양성으로 질적 변화를 꾀해야할 시점임을 주장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스마트복합무역인력은 글로벌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융복합 무역전문인력을 일컫는다. Park Kwang-So, Lee Byung-Mun and Park Se-Hoon (2018)는 스마트복합무역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스마트복합무역인력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부재하며, 청장년 취업을 저하,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 무역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산관학 협력의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Park Kwang-So, Lee Byung-Mun and Park Se-Hoon (2018)에 따르면,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스마트복합무역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수인력, 커리큘럼, 교재를 마련하고, 대학과 무역 관련 학회 및 무역아카데미 등 공공연수기관의 효율적인 연계를 추진하며, 상설 스마트복합무역인력 양성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Im Dal-Ho et al.(2017)는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무역전문인력 양성현황의 문제점으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학교육의 변화 요구, 실습교육 프로그램 병행 필요, 무역인력에 대한 광범위한 역량 요구, 기업의 무역인력 경력자의 선호, 무역인력에 대한 대학과 기업의 기대수준 괴리, 무역학 위상의 재정립 필요, 기존 무역전문인력에 대한 업무영역에 대한 재정립 필요 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들은 무역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관한 문제점도 제기하였는데, 우리나라 수출지원제도의 단기 실적 위주 편중 현상, 무역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부족, 무역인력 재교육의 필요성 대두 등을 제시하였다.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으로 창의적 대학 교육의 확대를 통한 창의적 무역 교육의 확대, 현장연계과정을 통한 산학연의 협력 강화와 실무형 인력 양성, 기존 산업인력 대체교육 강화, 무역인력 관련 일원화된 협의기구 신설, 무역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요조사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무역인력 양성의 개선방안 도출에 초점을 맞

춘 몇몇 연구도 수행되었다. Han Eun-Sig and Park Kwang-So(2010)는 신지역주의 심화, 신흥경제권과의 교역의 중요성 부각, 교역상품의 복잡·다양화의 글로벌 무역환경에 변화에 따른 선진형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Han Eun-Sig and Park Kwang-So (2010)는 선진형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역학의 연구영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무역학 분야의 컨버전스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교육체계 수립, 실무형 교수진 확충을 제안하였다. Han Eun-Sig and Park Kwang-So(2010)는 선진형 무역전문인력은 여러 역량 가운데서 인성이 중요한데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열정, 리더십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im Hag-Min (2004)은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기반의 협력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역량기반의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심화과정의 교과과정을 제공하며, 무역전문인력양성 포탈 사이트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Kang Ho-Yeon and Jeong Yoon-Say (2018)는 내수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무역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1인 창조기업의 확대 및 육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일환으로 1인 기업인들을 무역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재직자, 경력단절 여성, 국내거주 외국인 유학생, 특성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역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내수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이들 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Kang Ho-Yeon (2018)은 대학, 산업체, NCS 무역인력양성 교육과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 무역전문인력 양성체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Kang Ho-Yeon (2018)에 따르면, 대학의 무역실무 교육과정을 분야별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예를 들면, '통상 전문가', '물류 전문가', '지역 전문가' 등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해야하고, 신규 유망 서비스분야 무역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한다. 또한, Kang Ho-Yeon (2018)는 1인 창조기업의 확대 및 육성을 위한 무역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경력단절 여성, 특성화 고 학생, 국내거주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무역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며, NCS 교육 과정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무역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Oh Won-Seok, Yang Jung-Ho and Park Se-Hoon (2009)은 선진형 무역 전문인력을 개념화하고 이를 양성하기 위한 무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선진형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역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특정 해외지역에 특화된 '지역특화 무역대학'을 도입하며, 국가 통합무역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역관련 자격증을 개선하고 더욱 공신력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Ⅲ. 연구 방법

#### 1. 질적 연구 방법의 적용

본 연구는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전문가 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한 심층인터뷰 중심의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은 구조화된 질문과 정해지지 않은 질문에 답을 하는 비구조화된 질문의 중간단계로서 (Kim Mi-Sook, 2006; Eun Seung-Gil, Park Yong-Soon and Ko Dong-Wan, 2014), 연구자에 의해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어 자유대화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보다 효과적인 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질적 연구 방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현상을 간과할 수 있고 현장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어려울 수 있는 양적 연구방법에 비해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과정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현장의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Kim Mi-Sook, 2006).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무역전문가 양성 방안에 관하여, 선행연구의 대다수는 양적연구를 통하여 현상을 파악하였으나 무역전문가 양성의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내용 분석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전문가 양성에 대하여 전문가 입장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생생한 의견을 담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라는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개방형 심층인터뷰를 사용하였다. 국내외 문헌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무역환경 변화, 무역전문가의 핵심역량, 무역전문가 양성의 문제점, 무역전문가 양성의 개선방안에 관한 반구조화된 개방형 인터뷰 질문과 인터뷰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사전에 연구의 목적 및 취지와 함께 개방형 질문을 인터뷰 대상자에게 알려준 다음 추후 일대일로 대면하면서 각각의 질문에 관하여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주요 파악내용과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자유로운 대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 의견 등이 필요한 경우 인터뷰 대상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새로운 질문을 제시하며 인터뷰 대상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심층인터뷰를 수행하는데 있어 연구대상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확률적 표집(Nonprobability sampling)에 의한 목적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채택하였다. 목적표집법은 연구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고 판단되는 전형적인 추출단위를 표본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일반화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보다는 특정 상황에 대한 심화된 자료를 수집하는데 적합하다.

심층인터뷰 참여자를 엄선하여 수집한 자료는 자료의 진실성(Credibility) 또는 신뢰성(Trustworthiness)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양적 연구와 비교하여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이 결여된다는 단점을 가질 수 있으나, 질적 연구의 주된 성향이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얻은 자료로부터 일반화될 수 있는 결과(Generalization)를 얻는데 있다기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소수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Participant	Gender	Age	Job	Career
1 Participant A	M	54	Professor	Work in Trade Major at an University More Than 15 Years
2 Participant B	M	55	Director of Academy in related to Training Trade Experts	Work in a Trade Related Institution More Than 30 Years
3 Participant C	M	53	Manager of Government Department	Work in a Government Department More Than 20 Years
4 Participant D	M	51	Manager of Government Department	Work in a Government Department More Than 20 Years
5 Participant E	M	55	Director of Academy in related to Training Trade Experts	Work in a Trade Related Institution More Than 30 Years
6 Participant F	F	44	Director of Department in related to Training Trade Experts	Work in a Trade Related Institution More Than 20 Years
7 Participant G	M	58	Professor	Work in Trade Major at University More Than 10 Years
8 Participant H	M	40	Manager of Department in related to Training Trade Experts	Work in a Trade Related Institution More Than 10 Years
9 Participant I	M	50	Professor	Work in Trade Major at University More than 10 Years

의 대상으로부터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보다 심화된 자료를 수집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대표성 보다는 진실성의 측면이 더욱 중요시된다고 하겠다(Patton, 2002).

대학 부문, 민간 부문, 정부 부문의 각 부문별 3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총 9명을 인터뷰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모두 무역 실무, 무역인력 양성 등 무역 관련 업무를 수행한지 10년 이상 된 무역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심층인터뷰 참여자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 3. 자료 수집 및 분석

심층인터뷰는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터뷰 참여자에게 사전에 인터뷰 질문과 인터뷰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인터뷰 참여자가 가능한 시간에 인터뷰 참여자의 근무지를 방문하여 면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인터뷰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든 인터뷰는 녹음되었고, 녹음된 인터뷰는 모두 전사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Tesch, 1990; Patton, 2002). 자료 분석은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를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분류에 따른 코딩 및 주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주제 간의 연계를 이해하고, 해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Result of Interview Data Analysis

Category	Coding and Theme
1. Change of Trade Environment	1-1. Globalization
	1-2. Ris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1-3. Increase in Trade Protection
	1-4. US and China Trade Dispute
	1-5. Unfriendly Trade Environment
2. Competences of Trade Expert	2-1. Trade Practice
	2-2. Product Expertise
	2-3. Foreign Language Skills
	2-4. Understanding of Global Environment
	2-5. Understanding of the Market
3. Problems of Training Trade Experts	2-6. Convergent Entrepreneurship
	3-1. Mismatch
	3-2. Disparity with the Field
	3-3. Weakness and Decline of Trade Experts
	3-4. Uncertainty of Trade Expert Terminology
	3-5. Lack of Educational Infrastructure
	3-6. Lack of Systematic Organization at the National Level related to Training Trade Experts
3-7. Lack of Government Support for Training Trade Experts	
4. Improvement Plan for Training Trade Experts	4-1. Elimination of Mismatch
	4-2. Increase in Organization and Budget
	4-3. Establishment of Control Tower or Council
	4-4. Development of Trade Expert Roadmap
	4-5. Introduction of Certificated Trade Expert
	4-6. Improving Quality of Training Trade Experts
	4-7. Importance of Technology Development

한편 본 연구의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터뷰 전사 자료를 인터뷰 참여자에게 발송하고 불편한 부분이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멤버 체크링 방법(Member Checking)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 인터뷰 자료의 카테고리 및 코딩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전술하였듯이, 연구문제를 카테고리화 선정하여 무역환경 변화, 무역전문가의 역량, 무역전문가 양성의 문제점, 무역전문가 양성의 개선 방안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였다. 카테고리

로 구분된 자료를 코딩 및 주제에 따라 재분류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자료를 읽어 주제 간의 연계와 해석을 실시하였다.

#### 1. 무역환경의 변화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글로벌화, 4차 산업혁명의 대두,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을 최근 무역환경의 변화로 제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세계가 점점 다원화되고 국가 간의 의존도 및 연관성이 증대되면서 무역환경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역의 품

**Table 3.** Interview Result on Change of Trade Environment

1. Change of Trade Environment		
Coding and Theme	Participant	Comment
1-1. Globalization	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lobalization, including production and sales shifts to other countries was underway</li> </ul>
1-2. Ris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C,D,G,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hanges in transportation of trade, logistics system, change of payment method, etc. have occurred</li> <li>• The industry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robots and AI has developed. Related items would dominate trade</li> </ul>
1-3. Increase in Trade Protection	C,D,H,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s own industry was protected by imposing high tariffs and widening non-tariff barriers to goods of competing countries</li> </ul>
1-4. US and China Trade Dispute	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 and China make up almost 40% of the Korean economy. The countries that make up a large portion of the Korean economy are experiencing disputes, making Korea's trade environment more difficult</li> </ul>
1-5. Unfriendly Trade Environment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cently, as the global economy growth has slowed, protectionism and non-tariff barriers have been strengthene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Therefore, an unfriendly trade environment is being created compared to the past trade environment</li> </ul>

목, 형태, 거래 방식, 물류체계 등 무역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 A는 4차 산업혁명의 대두에 따른 무역 전반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무역에 있어서 품목이 바뀌고, 무역거래 형태가 바뀌어요. 쉽게 생각하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 수치로 표시했던 것들이 문자나 전자 거래로 바뀌고 상거래도 글로벌 전자 상거래 형태로 바뀌어요. 무역의 운송, 물류체계가 바뀌고, 결제수단도 바뀌어요. 예전엔 신용장이나 은행을 통해 됐는데 요즘엔 심지어 비트코인도 등장해서 결제 수단이 바뀌어요. 4차 산업혁명 전에는 노동력이싼 지역들이 제품들을 생산했는데 태국이나 인도나 중국에서 생산했는데, 독일에서 생산해도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로봇이 다 생산하니까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바뀌는 거예요.” (전문가 A)

기존 제조업이 아닌 로봇,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 품목들이 무역의 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터뷰에 참여한 몇몇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대두가 무역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 아직 무역인력양성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분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역시 무역환경의 주된 변화라고 인터뷰에 참여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하였다. 전문가 D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트럼프 국가가 시작된 이후에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비관세 장벽 등이 작용되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각국들에서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와 연계되어서 미중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예전 동서냉전을

방불케 하는 무역 분야의 신냉전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비관세장벽을 넓게 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모양이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D)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기술규정, 표준 등의 무역기술 장벽이 거세지고 있는 추세이다. 민간부문의 인터뷰 대상자로 참여한 전문가 H도 보호무역주의가 소속 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 G는 글로벌화, 4차 산업혁명의 대두,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 최근 무역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 무역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비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지적하였다. 성장세는 둔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과거에 비해 비우호적인 무역환경이라 할 수 있겠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 2. 무역전문가의 역량

무역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무역실무, 제품에 대한 전문성, 외국어 역량, 글로벌 환경의 이해, 시장에 대한 이해, 융합적 기업가 정신 등을 제시하였다. 무역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관하여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무역실무를 기본적인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이전 보다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지 않으며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무역실무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무역전문가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언급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무역과 관련된 국가나 지역의 언어는 물론이고, 문화, 역사, 정책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특히 강조한 무역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제품에 대한 전문성이었다. 4차 산업

혁명 등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품의 품목이나 형태는 다를지라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품에 대한 전문성은 무역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이라는 것이다. 무역전문가에게 요구되나 여전히 부족한 역량으로 제품에 대한 전문성임을 지적하며 전문가 I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무역인력을 이야기할 때 크게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산업무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 산업무역이라는 것은 무역하는 틀은 알겠는데 제도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실제로 그 업종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 종이컵을 갖고 가서 팔아야 하는데, 종이컵의 재질이 뭔지 이게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고 이런 기타 등등 특정 산업이요. 학생들이 무역하는 것은 알겠고, 제도도 알겠는데, 그 산업은 몰라요. 그래서 그 산업과 무역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문가 I)

전문가 A도 다른 역량에 비해 제품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 A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젊은이들이 지금은 기본적으로 어학능력도 갖추고 있고, 해외 경험도 있고,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부분보다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상대방에 가서 협상을 할 때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지요.” (전문가 A)

무역실무, 제품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이해와 같이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오던 무역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뿐만 아니라 글로벌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4차 산업혁명 등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역량으로 융합적 기업가 정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전문가 G는 융합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기능적인 분야도 있겠지만 앞으로 필요한 무역인력은 융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Table 4.** Interview Result on Competences of Trade Expert

2. Competences of Trade Expert		
Coding and Theme	Participant	Comment
2-1. Trade Practice	A,B,G	• Education on trade documents, such as letters of credit, was the mainstream of trade training
2-2. Product Expertise	A,B,E,F,G,I	• Knowledge and expertise on the product is important for negotiation • We need people who can go with the industry and trade together
2-3. Foreign Language Skills	B,F	• Fluent foreign language skills are basic
2-4. Understanding of Global Environment	A,B	• In India, people don't eat cows. In middle east, people don't drink. It is necessary to know other country's culture and understand the global environment
2-5. Understanding of the Market	B,E,G,H,I	• Since trade is an interactive busines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information about the countries, regions and markets involved
2-6. Convergent Entrepreneurship	C,G,I	• There is a need for an entrepreneurial workforce with a convergent and comprehensive mindset • A convergent workforce that can handle not only ICT skills but also service trade is required

지난 사업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화물을 처리하고 신용장을 결제하고 이러한 무역 실무가 중요한 인력이었다면 그것은 무역 초창기일 때나 필요한 인력이었고,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무 중심의 무역인력에서 사업가 능력을 갖춘 무역인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역의 밸류체인(Value Chain)에서 판매뿐만 아니라 상품개발, 기술개발도 필요하고 다양한 밸류체인에서의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역인력의 범위를 단순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융합과 제품의 개발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것이 R&D, 기술개발, 상품개발 다음으로 생산, 판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 다각도의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콘셉트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 G)

전문가 D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특화능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무역에 대한 협의적 관점에서 제품을 살고 파는 능력을 넘어 보다 융합적인 역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무역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관련하여 전문가 D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무역전문가들은 시대 흐름에 맞춰서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특화능력을 겸비할 수 있어야 해요, 국제 경제 질서 개편사항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판단력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처리 능력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진행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자무역 활용 능력이라든지 글로벌 소싱 및 협상 능력 이런 국제경제 질서의 어떠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상품을 사고팔고 그런 분야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능력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출도 감당할 수 있는 융복

합 인력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D)

과거에 요구되었던 무역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 외국어 능력은 기본적인 역량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제품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융복합적 기업가 정신, 도전의식, 사고력 등이 무역전문가에게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무역전문가 역량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표 4>과 같다.

### 3. 무역전문가 양성의 문제점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무역인력 양성의 문제점으로 양적·질적 미스매치(mismatch), 현장과의 괴리, 무역인력 양성 관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직 부재,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특히 양적·질적 미스매치를 무역인력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언급하였다. 미스매치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무역 분야 종사자가 무역 전공자가 아닌 전공과 직무와의 미스매치, 무역 전공자는 취업이 어렵다는데 정작 대기업은 양질의 무역전문가 부재를 겪고, 중소기업은 무역인력난을 겪는 취업과 채용의 미스매치 등이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미스매치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 G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미스매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역인력을 떠올렸을 때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면 그냥 실무에 대한 걸 다루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에 대한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선도적인 무역인력에는 관심이 부족해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이 선도적 무역인력이 필요하냐면 중소기업에서 특히 필요하거든요. 거기는 그런 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채용하더라도 인력들이 있으려고 하지도 않고, 항상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

력을 어떻게 충족시켜줄 것이냐하는 물음이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인력들을 공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 G)

인터뷰에 참여한 몇몇 전문가들은 미스매치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역인력 양성 구조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로 대학 무역 교육 자리매김의 어려움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무역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부처 간 중복 등 효율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터뷰에 참여한 몇몇 전문가들이 기술하였다. 전문가 D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현재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이런 큰 정부차원의 지원계획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무역인력이라고 해서 특화시켜서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무역인력 양성 관련해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조직이라든지 제도, 예산, 이런 것들이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차원의 무역인력 양성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아직은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러다보니까 이런 제도, 예산, 조직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문가 D)

현재 정부가 무역인력 양성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은 GTEP(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사업 정도로 그치고 있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인터뷰에 참여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언급하였다.

아울러, 무역환경은 급변하는데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현장과는 괴리가 있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인터뷰에 참여한 몇몇 전문가들이 지적하였다. 전문가 B는 무역전문가 양성은 산업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하므로

**Table 5. Interview Result on Problems of Training Trade Experts**

3. Problems of Training Trade Experts		
Coding and Theme	Participant	Comment
3-1. Mismatch	D,G,I	• Trade practice was emphasized. A leading trade force didn't receive attention. Small and midsize businesses in particular need a leading trade workforc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re hard to hire a leading trade force. There is always a risk
3-2. Disparity with the Field	B,E,F	• It is a living education only when it is accompanied by internship, on-site training, and field training because the environment is so diverse and changing fast
3-3. Weakness and Decline of Trade Experts	A,C	• It is good to teach the practice and use it for trade. It can be nurtured in the short term. But, in a long-term perspective, a trade workforce that knows the global environment, economy, management and culture is also needed
3-4. Uncertainty of Trade Expert Terminology	B,F	• There is no unified definition of trade expert
3-5. Lack of Educational Infrastructure	A,B	• Infrastructure for online training is not established • Educational facilities such as Beam Project are not equipped
3-6. Lack of Systematic Organization at the National Level related to Training Trade Experts	D,F	• The systematic organization, institution, and budget at the national level are poor in terms of training trade experts • Trade training is also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Venture Department. Training related to various trad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isn't efficient because it is done in parallel
3-7. Lack of Government Support for Training Trade Experts	A,I	• After all, funding is important. There is a lack of government support to foster trade experts

산업 현장과의 공동의 노력으로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요즘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교육이라는 게 학교라든지 무역협회 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반드시 기업과 공동으로 연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공동의 생각이예요. 예를 들어 인턴, 현장교육, 현장실습과 같은 교육이 동반되어야만 살아있는 교육이 되지요. 대학이나 우

리 같은 기관에서 엑시스만 추려서 주입하는 교육은 부족하죠. 왜냐하면 워낙 환경이 다양하고 빨리 변화하기 때문예요.” (전문가 B)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의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의 방식, 교육의 내용, 교수자, 교육환경 등이 개선되어야 함을 인터뷰에 참여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무역전문가 양성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5>과 같다.

#### 4. 무역전문가 양성의 개선 방안

무역전문가 양성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스매치의 해소,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조직 및 예산 확보, 총괄기구 혹은 협의회 구성, 무역전문가 로드맵 개발, 공인무역사 자격증 도입, 교육방식 및 교육의 질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무역전문가 양성의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이 미스매치였기 때문에 무역전문가 양성의 개선 방안으로 미스매치의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다. 전문가 D는 미스매치의 해소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무역전문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마련하고, 대기업에서는 해당 기업에 맞는 양질의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많은데 중소기업을 원하는 사람은 없고, 대기업에서는 원하는 양질인력이 없고. 그러므로 정부 측에선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중소·중견기업은 연봉이 적으니까 지원을 안 하겠죠. 이 부분은 지원해줘야겠죠. 또 대기업에게는 양질의 인력양성 위한 교육을 통해 그런 인력을 양성해야겠죠.” (전문가 D)

무역전문가 양성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문가 G는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 개선을 통한 기업이 정신과 도전 의식을 갖는 비전 있는 무역전문가 지원자를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어떤 무역에 관한 이슈별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 문제등과 같이 툭툭 던져주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시도를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돼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스매치들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G)

현재 정부는 일자리를 총괄하는 부서는 있으나 무역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도 GTEP 사업 정도이고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무역전문가 양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 마련되어야 하고 관련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터뷰에 참여한 몇몇 전문가들이 언급하였다. 전문가 D는 조직 및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GTEP은 3학년이 80프로인데 학생들이 취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취업과 연계되는 게 좀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가로 해볼 수 있는 사업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무역업계로 진입하고자하는 졸업자 대상으로 교육하고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사업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업들은 무역아카데미에서 하고 있겠지만 정부사업으로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GTEP사업이라든지 무역아카데미 이런 사업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예산 한계로 규모를 축소해서하고 있는데 여건 되면 인력도 늘리고 교육 질도 구조화시켜서 양질의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확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문가 D)

무역인력 양성 관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직이 부재하다 보니 무역인력 양성 총괄기구나 협의회 구성을 무역전문가 양성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는 몇몇 전문가들이 있었다. 전문가 F는 무역전문가 교육이 서로 중복되고 서로 연계되지 않아 효율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총괄기구나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Table 6.** Interview Result on Improvement Plan for Training Trade Experts

4. Improvement Plan for Training Trade Experts		
Coding and Theme	Participant	Comment
4-1. Elimination of Mismatch	D,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re are many people, but no one wants to go to small and midsize companies. Large corporations don't have the quality workforce they want.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a way to resolve the mismatch. Midsize companies have low salaries and thus people don't apply for them. The government needs to support this part. In addition, large corporations should cultivate high quality trade experts through education</li> </ul>
4-2. Increase in Organization and Budget	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budgets for fostering trade workforce should be secured</li> </ul>
4-3. Establishment of Control Tower or Council	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control tower or council, in charge of training trade experts, that provides information regularly and meetings with relevant staff is asked</li> </ul>
4-4. Development of Trade Expert Roadmap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roadmap to becoming a trade expert would be helpful</li> </ul>
4-5. Introduction of Certificated Trade Expert	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solution is to introduce a trade expert certificate system. Certified trade experts are people who can solve trade problems of SMEs with general knowledge of trade</li> </ul>
4-6. Improving Quality of Training Trade Experts	A,B,G,H,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operation between business, industry and academia is important in order to improve quality of trade training</li> <li>• Trade training should be taught on an issue-by-issue basis</li> </ul>
4.7 Importance of Technology Development	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 would be effective to cultivate trade manpower with a combin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li> <li>• Changes as a resul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uld be reflected in trade training</li> </ul>

“사실 ‘무역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면 딱 떠올라서 ‘어디를 가면 되겠구나.’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총괄해주는 기구가 있고 이왕이면 공신력 있는데서 좀 해주면 가장 좋긴 하겠죠.” (전문가 F)

무역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거나 단편적인 지식 습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및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다. 무역전문가가 되기 위한 로드맵이 개발되면 무역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지원자들뿐만 무역전문가 양성 담당자들에게도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양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터뷰의 참여한 전문가가 언급하였다. 전문가 F는 무역전문가 로드맵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연수시스템에서 로드맵이 있어요. 직급별로. 이런 식으로 무역전문가

문가 로드맵이 있어서 1급, 2급 올라가듯이 그런 게 사실 없으니까 무역전문가로 나아가는 로드맵이 있으면 해요. 이 정도까지 하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걸 하면 진짜 너는 중재정도 할 수 있어라고 활용할 수 있는 로드맵이요.” (전문가 F)

무역전문가 양성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괄 조직, 기구나 협회를 구성하고 무역전문가 로드맵 개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더불어 무역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도입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전문가 G는 무역전문가를 위한 자격증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안이 무엇이냐면 공인무역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예요. 공인무역사라하면 무역의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중소기업들의 무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에요. 무역 문제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양성 과제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역 기업가들을 확산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공인무역사를 통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G)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방식 및 교육의 질 개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기술하였다. 기존의 이론중심과 실무중심 차원을 넘어서 현장중심, 체험중심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분석·종합하여 판단하고 적용하는 융합적 사고력에 대한 훈련과 실제 산업 현장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몇몇 전문가는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이라는 특정시기의 교육 보다 평생교육 혹은 전환교육으로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안하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됨으로 무역환경이 변하므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고 더 나아

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을 적용하는 교육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음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무역전문가 양성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전문가 인력 양성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무역전문가의 개념은 글로벌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무역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경험을 갖추고, 급변하는 무역환경을 선도하며, 복잡화·다양화·융복합화 되는 무역 전반을 주도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고도의 숙련된 전문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문헌 자료를 분석하고, 대학 부문, 민간 부문, 정부 부문의 각 부문별 3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총 9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오늘날 무역환경의 변화는 글로벌화, 4차 산업혁명의 대두,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제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비우호적인 무역환경으로 이에 대비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무역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무역 실무지식은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외에 제품에 대한 전문성, 시장에 대한 이해, 융합적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제시하였다. 특히 융합적 기업가 정신과 같이 융복합 역량, 전략적 사고, 판단력 등이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과 4차 혁명의 대두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전문가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제시되었다. 무역전문가 양성의 문제점은 양적·질적 미스매치(Mismatch), 현장과의 괴리,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의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 무역전문가 양성의 개선 방안으로 미스매치의 해소,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조직 및 예산의 확보, 총괄기구 혹은 협의회 구성, 무역전문가 로드맵 개발, 공

인무역사 자격증 도입, 교육방식 및 교육의 질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전문가 양성의 방향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무역전문가 양성의 방향은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평적 확대와 수직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평적 확대는 1인 창업, 전자 무역의 거래 등 무역의 대중화에 따른 무역 실무지식 등 무역 관련 기본 지식에 대한 저변 확대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누구나 무역을 할 수 있고 무역에 관한 기본 지식을 언제 어디서든 습득할 수 있도록 소위 예비 무역전문가를 위한 지원, 체제, 및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평적 확대 보다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수직적 확대가 더욱 중요시되겠다.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직적 확대는 글로벌화, 4차 산업 혁명,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분쟁, 한일 무역분쟁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적합한 고도로 훈련된 수준 높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지원, 체제, 및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무역 실무지식, 외국어 능력, 시장 및 제품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넘어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에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무역환경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전체적인 관점(Holistic view)과 전략적 사고, 판단력 및 융복합적 기업이 정신, 도전 의식과 인성을 갖춘 양질의 무역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무역전문가 양성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미스매치(Mismatch)의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역 전공자가 축소되고 비전공자가 무역 관련 직업을 갖으며,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산·관·학이 상호 협력 및 연계하여 교육, 채용, 훈련, 승진 등의 과정에서 양적·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부의 조직이 확충되고 관련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화에 대한 정책적 역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인력 관련 사업은 GTEP 정도로 많지

않으며, 정부 내 관련 팀의 부재와 예산의 부족이 심각하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입, 무역, 통상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하고 관련 조직과 예산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총괄 기구 혹은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프로그램, 사업 등이 많지 않은 실정이나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마저 중복되거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프로그램, 사업 등을 총괄하는 기구나 컨트롤 타워를 수립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력과 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무역전문가 로드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무역전문가 양성의 수평적 성장과 더불어 수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초적인 수준에서 출발하여 심화 교육 및 훈련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해 고도의 훈련된 수준 높은 무역전문가로 발전하기 위한 로드맵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물류관리, 수출입관리, 원산지관리, 유통관리, 무역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NCS 기반 경력개발 경로모형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무역전문가 로드맵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인무역사 자격증을 도입해야 한다. 국제무역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나 공신력이나 실효성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므로 무역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증에 대한 공신력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인무역사 자격증 도입에 대해 고려할 수 있겠다.

여섯째, 교육방식 및 교육의 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외의 무역환경은 급변하는데 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방식 및 교육의 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관·학이 상호 협력 아래 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을 개편하고, 개편된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을 양성하며, 무역환경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교육의 질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9명의 무역인력 양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자료 분석과 문헌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인터뷰 자료 수집과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멤버 체크킹(Member Checking) 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이외에도 삼각 측정 방법(Triangulation)을 활용하는 등 자료 수집과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데에서도 제한점이 따른다고 하겠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무역인력의 부족에 대비하여 경력단절 여성,

외국인 유학생, 베이비부머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인력 양성과 활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역인력 양성의 변화와 실질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역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효과 분석에 관한 정책적 연구도 수행되어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 개념의 무역인력을 넘어 오늘날의 무역환경 변화에 적합하고, 미래의 무역환경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개선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Cho, Won-Gil (2016),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Global Trade Manpower based on NC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2(1), 171-190.
- Eun, Seung-Gil, Yong-Soon Park and Dong-Wan Ko (2014), "Characteristic Analysis of Lotting-out and Fee System in Resort Management Contract-Focusing on Interview with an Expert",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 29(5), 117-137.
- Han, Eun-Sig (2010), A Study of Cultivating Trade Specialists in Accordance with Trade Environment Changes. SungKyunKwa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Han Eun-Sig and Kwang-So Park (2010), "A Study on the Proposal for Training of Global Trade Expert of Korean University under Global Trade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47, 403-428.
- Im, Dal-Ho, Sung-Chul Bang, Hyung-Chul Kim, Jae-Seun Jung and Kwang-Hyun Yoo (2017), A Study on Policy Development for Cultivating Trade Experts,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 Kang, Ho-Yeon (2018), A Study on Improving the Training System for Trade Experts to Promote Export of SMEs, DanKook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Kang, Ho-Yeon and Yoon-Say Jeong (2018), "A Study on the Proposal for Training of the Trade Experts to Promote Export of Domestic Companies",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5, 93-117.
- Kim, Hag-Min (2004), "A Study on Knowledge based Collaborative Model for Advanc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Global Business Practice", *Korea Trade Review*, 29(4), 231-257.
- Kim, Hag-Min (2018), *Development of Proactive Human Resources in Global Trade and Commerce Area*, Timebe Publication.
- Kim, Mi-Sook (2006), "On the Mixed Method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a Qualitative Researcher",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6(3), 43-64.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9), 2018 Import and Export. Press Release.
- Oh, Won-Seok, Jung-Ho Yang and Se-Hoon Park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rade Expert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Park, Kwang-So, Byung-Mun Lee and Se-Hoon Park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mart Convergence Trade Manpower,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 Patton, M. (2002),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3rd ed.). CA: Sage.
- Tesch, R. (1990), *Qualitative Research: Analysis Types and Software Tools*. NY: Falmer.
- Yoon, Chung-Weon and Zuan-Kuo Liu (2008), "A Study on the Status and Necessary Measures to Reform the Curriculum of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in Korean Universities", *Korea International Commercial Review*, 23(3), 157-183.